

한솔케미칼, 과산화수소 생산 확대

LIG증권, 2012년 영업이익 331억원 ... 원료 3만톤에 반정제 6000톤

한솔케미칼의 2012년 영업이익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.

LIG증권 서영화 연구원은 “한솔케미칼의 2012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38% 늘어난 331억원에 달할 것”이라며 “과산화수소(Hydrogen Peroxide)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, 신제품 생산량 증가 등에 따른 것”이라고 2월29일 발표했다.

LIG증권은 한솔케미칼의 목표주가로 2만7000원을 제시했다.

한편, 한솔케미칼은 반도체 및 LCD(Liquid Crystal Display)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원료 과산화수소와 반도체용 반정제 과산화수소의 생산 확대에 63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.

원료 과산화수소는 5만5000톤에서 8만5000톤으로, 반도체용 반정제 과산화수소는 1만9000톤에서 2만5000톤으로 증설한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2/02/29>